

의복구성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의류산업 현장의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패턴제작을 중심으로—

李貞順·韓敬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to Improve the Rinkage between Apparel Industry and
a University Education on Clothing Construction
—Focus on Process of Pattern Making—

Jung-Soon Lee and Gyong-Hee Han

Dept. of Fashion Design, Sang 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사항

2. 패턴니스트의 인구통계적 특성

3. 패턴제작방법

4. 패턴니스트의 업무

5. 패턴제작기술의 습득기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inkage between apparel indusy and a university education on clothing construction. The random survey was carried out on 207 patternists, working at 64 apparel companies. In this study such factors a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method of pattern making, work,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pattern making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ale workers are mainly thirties and forties who graduated high school with 5 years experience or more. Female workers are mostly twenties who graduated junior college with 5 years experience or less.
2. In a way of working, male patternists tend to perform pattern making by using drafting method while female patternists generally choose apparel CAD system for grading and marking.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99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국내 의류산업은 1970년, 1980년대의 고도산업화 사회를 거쳐 성장산업에서 성숙산업으로 그리고 산업화·공업화 단계에서 문화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간 양적 성장에만 의존하던 우리 의류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패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매년 배출되는 전문인력은 만여명으로 그 중 대부분의 전문인력은 디자이너만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패션산업계에서는 디자이너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며 점차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 각 분야별로 훈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도규희 등의 복식관련학과의 교과과정 분석¹⁾에서 패션전문교육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영역이 의상디자이너영역과 의복구성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직에서도 두 영역에서 배출될 수 있는 인재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 나라 복식산업의 전문인력을 살펴보면 디자이너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패션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작기술과 마케팅력 없이는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작품일 뿐 소비시장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패션산업으로서 성공하는 패션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과 함께 좋은 패턴과 제작기술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needs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와 분석, 이에 따른 기획력 등이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야만 한다.²⁾

국내 의류업계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CAD 시스템이 최근 급속히 그 보급이 확대되어 18개 업체 시스템이 약 300여 업체에 도입되어 실용단계에 있다. 그러나 고가의 도입 가격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시스템 활용도는 패턴수정·그레이딩·마킹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³⁾

현재 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패턴니스트인데 이 분야는 의류제조업 분야에서 기능성과 감각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기능분야라는 이유로 기피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류산업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므로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의복구성학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패턴니스트로서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로 구성인력들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또한 달라져야 한다. 대학교육의 목표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회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종래의 의복구성학은 의복을 만드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성복이 일반화되고 작업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는 현재,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복구성학 영역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성학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개선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의류산업체의 다양한 공정 중 패턴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의류산업체 중 무작위로 64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 종사하는 패턴업무 담당자 즉, 수작업이나 CAD로 패턴을 제작하거나, 그레이딩·마킹 담당자 등 패턴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9월 5일에서 9월 20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업체일반사항과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패턴제작방법 및 패턴제작유형, 그리고 패턴니스트의 업무방식, 패턴제작기술의 습

특기관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교차분석 및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사항

<표 1>은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사항으로 생산품목·판매방식·생산방식 및 패턴제작과정과 관계가 있는 CAD 시스템보유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생산품목으로는 숙녀복이 36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 14개 업체, 신사복·아동복·내의류 생산업체 등이었다.

판매방식은 내수가 35개 업체(54.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업체가 18개 업체(28.0%)이고 그리고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는 11개 업체(17.2%)였다.

1989년 이후 임금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둔화되고, 수출기반이 붕괴되면서 수출업체들의 내수 전환과 신규업체들의 내수 의류산업의 진출로 국

내의류산업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 91년에 50%를 상회한 내수의 비중은 '95년에는 70%선을 넘어서 우리 나라 의류산업이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므로써 나타난 결과이다.⁴⁾ 그러나 1998년의 IMF체제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으로 내수 생산 봉제업체들은 줄어든 오더량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내수생산업체들이 수출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판매방식의 구조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⁵⁾

생산방식에서는 하청 생산을 하는 업체와 자체 생산과 하청 생산을 겸하고 있는 업체가 29업체(45.3%), 자체 생산만을 하는 업체가 6개 업체(9.4%)였다. 자체 생산은 제품의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보다 정확한 계획 및 특정작업을 쉽게 다룰 수 있으나 고정적으로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 투자를 요한다. 자체 생산은 신사복과 같이 스타일 변화가 적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형태나 디자이너 브랜드와 같이 소량의 차별적인 디자인과 품질을 위주로 한 경우에 유리하며, 제품의 시간성 보다도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에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과 주문제품의 신속한 생산체제로의 전환요구 및 판매시장의 세

<표 1>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사항

| 분 류 | 업체수 | 백분율(%) | |
|--------------------|-------------|--------|------|
| 생산품목 | 숙녀복 | 36 | 56.3 |
| | 신사복 | 6 | 9.4 |
| | 아동복 | 7 | 10.9 |
| | 스포츠웨어·캐주얼웨어 | 14 | 21.9 |
| | 내의류 | 1 | 1.6 |
| 판매방식 | 내수 + 수출 | 18 | 28.1 |
| | 내수 | 35 | 54.7 |
| | 수출 | 11 | 17.2 |
| 생산방식 | 자체 + 하청 | 29 | 45.3 |
| | 자체 | 6 | 9.4 |
| | 하청 | 29 | 45.3 |
| CAD system 보유현황 | 있다 | 50 | 78.1 |
| | 없다 | 14 | 21.9 |
| 계 | 64 | 100.0 | |

분화·제품의 고급화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의류업계가 당면한 생산인력의 부족·주문량 부족·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된 기존의 체제로는 관리비 및 고정비용이 과다하게 유발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류업계가 세분화·경량화 되고 하청이 강화되어 네트워크 형태의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⁶⁾

어패럴 CAD 시스템의 보유현황으로 CAD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50업체(78.1%)로서 많은 업체가 CAD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80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CAD/CAM 시스템은 상당한 고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였다.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PC의 등장으로 '90년대에 들면서 시스템 가격이 현실화되고 기능은 향상되어 이제 중소기업에까지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CAD/CAM 설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이 가진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의류업체들의 현실이다.

2. 패터니스트의 인구 통계적 특성

〈표 2〉는 조사대상 패터니스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연령은 남자는 30대가 7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가 20.3%였으며 여자는 20대가 81.0%로 남·녀 패터니스트들 간에 연령차는 크게 나타났다. 학력은 남자는 고졸 출신자가 82.0%,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1.7%이나, 여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86.0%였다. 여자 패터니스트는 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고 남자 패터니스트는 고졸출신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83명 중 남자는 15명이고 여자는 68명이었으며, 남자는 의류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43.8%, 비전공자는 56.3%였으나, 여자는 전공자가 88.1%로 여자 패터니스트들은 의류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패턴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패터니스트들의 경력은 남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64.1%, 5~10년 미만의 경력자는 26.6%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90.7%이고, 여자는 1~3년 미만이 44.3%, 3~5년 미만이 25.3%로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69.6%, 5~10년 미만의 경력자는 27.8%였다. 월임금 수준도 남자는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34.4%, 150~200만원 이하가 34.4%, 100~150만원 이하는 29.7%였으나, 여자는 100만원 이하가 53.2%, 100~150만원 이하는 39.2%로 여자 패터니스트는 주로 150만원 이하의 임금수준이었으며, 남자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68.8%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방식은 남·녀 모두 소개로 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패터니스트 뿐만 아니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체가 주로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기업수준이고 직원들의 이동률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공채보다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패터니스트들의 연령은 주로 30대가 50.7%, 20대가 34.3%로 30대와 20대가 전체의 85.1%를 차지하며, 여자패터니스트들은 주로 20대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경력 5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남자패터니스트들은 30대와 40대의 고졸 학력자로서 경력은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럴 CAD 시스템의 도입으로 패터니스트들은 남성중심의 기술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차츰 여자 패터니스트들도 양성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산업의 여러 스페셜리스트 중 디자이너만을 선호하던 전문인력들이 패터니스트로서도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의류산업 현장에서의 패터니스트들은 대부분 패션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은 저학력자로 우연한 기회에 패턴을 접하고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패터니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기술직으로 인식되어 디자이너 분야와는 달리 저학력의 남자 패터니스트가 주로 이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다.

어패럴 산업의 프로세스는 [기획]·[설계]·[생산]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패터니스트가 속해 있는 설계부문은 이론과 감성을 핵으로 하는 [기획]이라는 소프트 부문과 기계와 조립하여 기술을 핵으로 하는 [생산]이라는 하드한 부문의 중간에 위치하여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위 감성을 수치화하는 번역자로서 각 부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연관이 있는 타 부문의 기능과 역할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패터니스트가 담당하는 업무는 조직의 규모·

형태·관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띄고 있고, 패터니스트 자신의 의지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턴에 따라서 그레이딩·마킹·봉제의 제반사항이 결정되며, 디자이너가 제작한 디자인패턴은 미를 창조하기 위한 패턴이라면 패터니스트가 제작한 패턴은 그 미를 기능화·수치화하여 다시 제작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패터니스트의 최대의 임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체형, 사이즈, 인체의 움직임)·소재의 성질·소재의 가공방법 및 봉제·cost 산출 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에 덧붙

<표 2> 패턴실구성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단위 : 명(백분율)

| 분류 | 성별 | 성별 | | |
|------|--------------|------------|-----------|------------|
| | | 남 | 여 | 계 |
| 연령 | 20대 | 7(5.5) | 64(81.0) | 71(34.3) |
| | 30대 | 90(70.3) | 15(19.0) | 105(50.7) |
| | 40대 | 26(20.3) | - | 26(12.6) |
| | 50대 | 5(3.9) | - | 5(2.4) |
| 학력 | 중졸 | 8(6.3) | | 8(3.9) |
| | 고졸 | 105(82.0) | 11(13.9) | 116(56.0) |
| | 전문대졸 | 4(3.1) | 40(50.6) | 44(21.3) |
| | 대졸 | 11(8.6) | 28(35.4) | 39(18.8) |
| 경력 | 1~3년 미만 | 9(7.0) | 35(44.3) | 44(21.3) |
| | 3~5년 미만 | 4(3.1) | 20(25.3) | 24(11.6) |
| | 5~10년 미만 | 34(26.6) | 22(27.8) | 56(27.1) |
| | 10년 이상 | 81(64.1) | 2(2.5) | 83(40.0) |
| 월임금 | 100만원 이하 | 2(1.6) | 42(53.2) | 44(21.3) |
| | 100~150만원 이하 | 38(29.7) | 31(39.2) | 69(33.3) |
| | 150~200만원 이하 | 44(34.4) | 5(6.3) | 49(23.7) |
| | 200만원 이상 | 44(34.4) | 1(1.3) | 45(21.7) |
| 입사방식 | 공채 | 18(14.1) | 15(19.0) | 33(15.9) |
| | 소개 | 100(78.1) | 56(70.9) | 156(75.4) |
| | 기타 | 10(7.8) | 8(10.1) | 18(8.7) |
| 계 | | 128(100.0) | 79(100.0) | 207(100.0) |
| 전공여부 | 전공 | 6(43.8) | 60(88.1) | 66(79.5) |
| | 비전공 | 9(56.3) | 8(11.9) | 17(20.5) |
| 계 | | 15(100.0) | 68(100.0) | 83(100.0) |

여 적절한 시대감각을 지녀야 하며, 미의식을 갖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훌륭한 사회성을 지녀야 패터니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⁸⁾

단순한 패턴제작자로서의 패터니스트가 아니고 역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패터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전문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차츰 CAD의 도입으로 인한 패턴실의 작업 환경의 변화와 패터니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 패터니스트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며 <표 2>의 결과에서도 아직은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패터니스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패턴제작방법

1) 패턴실 구성원의 작업방식

<표 3>은 패턴실 구성원의 작업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64개 업체중 패턴사가 수작업을 하는 업체는 34개 업체(61.8%),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는 업체는 14개 업체(25.5%) 그리고 CAD로 작업하는 업체는 7개 업체(12.7%)였다.

보조패턴사가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각각 21업체(72.4%),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는 업체와 CAD만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각각 4개 업체(13.8%)였다.

그리고 그레이딩사와 마카사가 CAD로 작업하는 업체가 그레이딩은 89.1%, 마킹은 86.8%로 많은 업체가 그레이딩과 마킹은 CAD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9,10)}의 결과와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CAD시스템의 사용은 아직은 그레이딩 공정과 마킹 공정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류생산을 위한 준비공정 작업내역을 보면 작업의 종류는 디자인, 패턴제작, 그레이딩, 마킹, 봉제사양인데 각각의 구성비는 대체로 디자인이 10%, 패턴제작이 50%, 그레이딩 25%, 마킹 5%, 봉제사양이 10%의 비율로 구성¹¹⁾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패턴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CAD·CAM 장비의 바람직한 활용은 패턴에 대해 전반적인 기능을 가진 패터니스트가 수작업으로 하던 패턴제작을 컴퓨터상으로 패턴제작 및 마킹작업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패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운용인력보다는 기기를 단순히 작동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CAD 교육도 주로 장비 사용법에 치중한 교육이 대부분이라서 운용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

<표 4> 패턴작업방식의 변화예측

단위 : 명(%)

| 작업 방식 | 구성 원수 |
|---------------|------------|
| 수작업만으로도 가능 | 8(3.9) |
| CAD 작업으로 전환 | 32(15.5) |
| 수작업과 CAD작업 병행 | 167(80.7) |
| 계 | 207(100.0) |

<표 3> 패턴실 구성원의 작업방식

단위:업체수(%)

| 작업방식 구성원 | 수작업 | CAD 작업 | 수작업 + CAD 작업 | 계 |
|-------------|----------|----------|--------------|------------|
| 패턴사 | 34(61.8) | 7(12.7) | 14(25.5) | 55(100.0) |
| 보조 패턴사 | 21(72.4) | 4(13.8) | 4(13.8) | 29(100.0) |
| 그레이딩사 | 5(10.9) | 41(89.1) | - | 46(100.0) |
| 마카사 | 5(13.2) | 33(86.8) | - | 38(100.0) |
| 계 | 65(38.7) | 85(50.6) | 18(10.7) | 168(100.0) |

다.¹²⁾

2) 패턴제작방법에 대한 변화 예측

〈표 4〉는 현재 패턴실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패턴제작방법에 대한 변화의 질문에서 수작업만으로 패턴제작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8명(3.9%), CAD작업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32명(15.5%), 그리고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여 작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167명(80.7%)이었다.

〈표 5〉는 〈표 4〉의 변화예측에 대한 요인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77명(37.2%), 패턴제작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55명(26.6%), 그리고 산업자동화의 일환으로 CAD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가 47명(22.7%)였다. 그룹별 비교에서도 전체적인 결과와 비슷하나 특징적인 차이만 보면 연령별 비교에서 30대와 40대에 비하여 20대가 산업자동화의 일환으로 패턴제작시 CAD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높은 것(20대:35.2%, 30:18.1%, 40

대:11.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 비교나 경력별 비교에서도 학력이 높고 경력이 적을수록 산업자동화의 일환으로 패턴작업 또한 CAD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패턴리스트의 패턴제작방법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평면제도에 의한 방법과 입체제단에 의한 방법 그리고 두가지 방법을 편리하게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대상자들중 〈표 6〉의 패턴제작 방법의 조사에서 패턴을 담당하는 패턴사의 경우 주로 평면제도와 입체제단을 혼용하는 경우가 70명(53.4%), 평면제도만으로 패턴을 만드는 사람은 57명(43.5%)이며 입체제단만으로 패턴을 만드는 사람은 4명(3.1%)이었다.

입체제단이 평면제도에 비하여 고감각의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인대의 문제 및 자료부족,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한 스타일을 입체화 할 경우 아직은 평면제도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로 스타일 변형이

〈표 5〉 패턴제작시 CAD 도입의 필요성

단위 : 명(%)

| 분류 | 별인 | 생산성 향상 | 고용난 해소 | 패턴제작 의정확성 | 산업자동화의 일환 | 생산비 절감 | 기타 | 계 |
|-----|--------|----------|----------|----------------------|---------------------|----------------------|----------------------|--------------------|
| | | 성별 | 남 여 | 49(38.3) 28(35.4) | 10(7.8) 1(1.3) | 36(28.1) 19(24.1) | 22(17.2) 25(31.6) | 7(5.5) 5(6.3) |
| 연령별 | 20대 | 23(32.4) | 1(1.4) | 16(22.5) | 25(35.2) | 6(8.5) | | 71(100.0) |
| | 30대 | 41(39.0) | 7(6.7) | 28(26.7) | 19(18.1) | 5(4.8) | 5(4.8) | 105(100.0) |
| | 40대 | 10(38.5) | 3(11.5) | 9(34.6) | 3(11.5) | 1(3.8) | | 26(100.0) |
| | 50대 | 3(75.0) | - | 2(25.0) | | | | 5(100.0) |
| 학력별 | 중졸 | 6(75.0) | - | 2(25.0) | | | | 8(100.0) |
| | 고졸 | 45(38.8) | 6(5.2) | 36(31.0) | 18(15.5) | 7(6.0) | 4(3.4) | 116(100.0) |
| | 전문대졸 | 8(18.2) | 5(11.4) | 10(22.7) | 19(43.2) | 1(2.3) | 1(2.3) | 44(100.0) |
| | 대졸 | 18(46.2) | | 7(17.9) | 10(26.6) | 4(10.3) | | 39(100.0) |
| 경력별 | 1~3년 | 13(29.5) | 1(2.3) | 12(27.3) | 14(31.8) | 4(9.1) | | 44(100.0) |
| | 3~5년 | 11(45.8) | - | 5(20.8) | 6(25.0) | 2(8.3) | | 24(100.0) |
| | 5~10년 | 19(33.9) | 1(1.9) | 21(37.5) | 11(19.6) | 2(3.6) | 2(3.6) | 56(100.0) |
| | 10년 이상 | 34(40.9) | 9(10.8) | 17(20.5) | 16(19.3) | 4(4.8) | 3(3.6) | 83(100.0) |
| 계 | | 77(37.2) | 11(5.3) | 55(26.6) | 47(22.7) | 12(5.8) | 5(2.4) | 207(100.0) |

<표 6> 패턴제작방법 단위: 명(%)

| 제작방법 | 분류 | |
|-----------|------------|-----------|
| | 패턴사 | 보조패턴사 |
| 평면제도 | 57(43.5) | 16(69.6) |
| 입체재단 | 4(3.1) | 7(30.4) |
| 평면제도+입체재단 | 70(53.4) | - |
| 계 | 131(100.0) | 23(100.0) |

가능한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에만 입체재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입체 패턴제작을 위한 많은 시스템들이 도입 연구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은 기본은 평면이고, 그위에 부분적인 가봉으로 입체화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¹³⁾

의류입체에서 패턴제작을 하는 유형은 새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원형부터 제작하여 디자인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공업용 패턴으로 완성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기존의 저장된 중간단계의 패턴중 유사패턴을 이용하여 디자인에 따라 패턴을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는 수작업으로 처음 단계부터 패턴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패턴제작은 원형패턴제작·디자인 패턴제작·공업용 패턴제작·생산용 패턴제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디자인패턴은 디자이너가, 공업용 패턴은 패턴니스트가, 생산용 패턴은 봉제기술자가 제작하는 것¹⁴⁾이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디자인패턴을 디자이너가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패턴니스트가 디자이너의 스케치나 제품사양서에 근거하여 업체생산에 적합한 패턴을 개발하고 패션트렌드에 따른 패턴을 연구하여 원형을 제작하고 수정, 보완하는 등, 패턴에 관한 모든 업무는 패턴니스트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에서 중간원형에 부분적인 수정만 가하는 경우는 41명(31.3%)뿐이고 기본원형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35명(26.7%), 원형없이 패턴작업을 하는 경우는 50명(38.2%)으로서 거의 60% 정도는 원형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작업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시정되어야 하는 점으로 생각되며 CAD 시스템의

<표 7> 패턴제작유형 단위: 명(%)

| 시작단계 | 분류 | |
|------------|------------|--|
| | 패턴사 | |
| 기본원형부터 시작 | 35(26.7) | |
| 중간원형에 부분수정 | 41(31.3) | |
| 원형없이 패턴제작 | 50(38.2) | |
| 기타 | 5(3.8) | |
| 계 | 127(100.0) | |

도입 등으로 효율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4. 패턴니스트의 업무

의류제조공정에서 패턴니스트가 담당하는 업무는 디자인패턴을 제작하여 샘플제작을 거친 후 양산(量産)이 결정되면 공업용 패턴을 제작하고 그레이딩·마킹작업을 거친 후 봉제공정으로 넘어가는 봉제준비공정을 담당한다. 우리 나라 패턴니스트들의 패턴제작시의 업무방식을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에서 성별·연령별·학력별·경력별로 모든 그룹간에 패턴제작에 관련한 업무방식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구성원들은 56.3%가 수작업을 하고, 21.1%가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주로 CAD를 이용하여 그레이딩과 마킹을 담당하는 사람이 4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작업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20대는 주로 CAD를 이용하여 그레이딩과 마킹(45.1%)을 주로 담당하고 30대와 40대는 수작업(51.4%, 50.0%)이나, 수작업과 CAD를 병행(21.9%, 26.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패턴니스트는 수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고졸학력자 중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는 경우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그레이딩·마킹을 담당하는 경우는 50%이며, 대졸자는 그레이딩·마킹을 담당하는 경우는 30.8%,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28.2%로 나타났다.

경력별 차이를 보면 주로 5년 미만의 경력자인

<표 8> 패턴제작에 관련한 업무방식

단위 : 명(%)

| 업무방식 | | 수작업 | 수작업 +CAD | 그레이딩· 마킹(CAD) | 패턴제작· 그레이딩· 마킹(CAD) | 기타 | F값 |
|------|--------|----------|-------------|------------------|---------------------------|---------|-----------|
| 성별 | 남 | 72(56.3) | 27(21.1) | 8(6.3) | 20(15.6) | 1(0.8) | 25.034*** |
| | 여 | 13(16.5) | 11(13.9) | 34(43.0) | 20(25.3) | 1(1.3) | |
| 연령별 | 20대 | 13(18.3) | 8(11.2) | 32(45.1) | 16(22.5) | 2(2.8) | 16.379*** |
| | 30대 | 54(51.4) | 23(21.9) | 9(8.6) | 19(18.1) | - | |
| | 40대 | 13(50.0) | 7(26.9) | 1(3.8) | 5(19.2) | - | |
| | 50대 | 5(100.0)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 6(75.0) | 2(25.0) | - | - | - | 11.913*** |
| | 고졸 | 61(52.6) | 26(22.4) | 8(6.9) | 21(18.1) | - | |
| | 전문대졸 | 7(15.9) | 4(9.1) | 22(50.0) | 10(22.7) | 1(2.3) | |
| | 대졸 | 11(28.2) | 6(15.4) | 12(30.8) | 9(23.1) | 1(2.6) | |
| 경력별 | 1~3년 | 11(25.0) | 4(9.1) | 19(43.2) | 8(18.2) | 2(4.5) | 18.746*** |
| | 3~5년 | 2(8.3) | 3(12.5) | 12(50.0) | 7(29.7) | - | |
| | 5~10년 | 24(42.9) | 15(26.8) | 8(14.3) | 9(16.1) | - | |
| | 10년 이상 | 48(57.8) | 16(19.3) | 3(3.6) | 16(19.3) | - | |
| 계 | | 85(41.1) | 38(18.4) | 42(20.3) | 40(19.3) | 2(1.00) | |

*** p<.001

경우 CAD로 그레이딩·마킹을 담당하는 경우가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5~10년 이상인 경우는 수작업이 42.9%, 10년 이상인 경우는 57.8%이며, 수작업과 CAD를 병행하는 경우가 5~10년 26.8%, 10년 이상 19.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패턴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패턴리스트들은 주로 수작업으로 패턴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패턴을 제작하고 부분수정 정도만 CAD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주로 CAD를 이용하여 그레이딩·마킹작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기능·고가의 CAD시스템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9,10)}로 나타났으며 <표 9>에 회사내에 CAD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패턴제작시 CAD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패턴 제작 기능상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40.8%, 그리고 CAD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0.3%로 나타났다.

패턴제작 시스템의 기능면을 살펴보면, 패턴제작 시스템은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현재에는 기본치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도되도록 되어있어 운영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차를 적게 하고 기술의 탈기능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속도 면에서 매우 빠르나, 시스템 자체의 소프트웨어

<표 9> 패턴제작시 CAD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이유 |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 | 컴퓨터의 사용능력 부족 | 패턴제작 기능상의 문제 | CAD기능 습득 시간 부족 | 기타 | 계 |
|-----|----------------|-----------------|-----------------|-------------------|--------|----|
| 인원수 | 4(5.3) | 11(14.5) | 31(40.8) | 23(30.3) | 7(9.2) | 76 |

가 각 업체의 작업방식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용율은 매우 낮다. 이는 각 업체마다 소비자의 연령, 성별 및 사이즈 스펙(size spec)이 다르고, 패턴제작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패턴니스트들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필요치 않은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적용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패턴제작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성능에는 패턴의 부위별 사이즈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패턴의 규격 확인과 여유분 적용 기능, 원단에 따라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보다 효율적인 자동패턴 제작 기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이 최소한 요구된다.¹⁰⁾ 따라서 최근에는, 2차원적인 평면패턴을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3차원적인 입체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착장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원단상태, 봉제부자제를 고려한 완벽한 가공상태 제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인의 체형을 조사하여 작업방식별, 작업내용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패턴제작 시스템은 비전문가도 쉽고 용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컴퓨터의 개념은 사용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투영되어야 하므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학습면에서도 제도법에 관한 설명을 각 과정마다 제시하거나 제도의 진행과정을 그래픽으로 제시하는 등 학습자 스스로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형제도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기능과 멀티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O/S체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패턴니스트들은 수작업 패턴이 손과 눈에 익숙해져 있어 CAD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마음대로 선이 그려지지 않는데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패턴제작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CAD시스템의 기능적인 효과에 대한 느낌은 긍정적이나 사용하기까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패턴제작기능은 더 강력한 기능과 현실적인 작업성격에 맞는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우선

패턴니스트 자신들이 생산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CAD시스템에 다가설 때 CAD시스템의 활용의 극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5. 패턴제작기술의 습득기관

패턴제작기술을 배운 기관에 관한 조사 <표 10>에서 주로 남자는 업체(35.6%)와 개인지(38.7%)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학원(32.9%)과 학교(30.9%)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는 주로 학원(33.1%)과 학교(30.9%) 그리고 업체(23.5%)에서, 30대는 업체(37.4%), 개인지도(32.7%), 학원(23.0%) 순이며, 40대는 개인지도(50%), 업체(27.8%)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비교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지도나 업체를 통하여 패턴교육을 받고 전문대졸 이상자는 학교와 학원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비교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업체나 개인지도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경력이 적을수록 학교나 학원에서 패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패션교육은 특히 학원과 대학의 두 기관의 체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패션교육의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학교보다는 학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학원간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학원생중 상당부분 의류관련 학과 졸업자나 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하는 이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차별화된 방향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CAD교육을 받은 기관의 조사인 <표 11>에서 성별간의 비교는 남자는 CAD공급업체(49.1%)와 패션업체(21.3%)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으며 여자는 학원(31.7%)과 공급업체(24.2%)에서 CAD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는 학원(34.0%)과 공급업체(22.0%)에서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공급업체에서 주로

<표 10> 패턴제작 기술의 습득기관

(단위 : 명(%), 중복응답)

| 교육장소 | | 학원 | 개인지도 | 패션업체 | 학교 | 배워본적 없다 | 계 |
|------|--------|----------|----------|-----------|----------|------------|------------|
| 분류 | | | | | | | |
| 성별 | 남 | 42(21.6) | 75(38.7) | 68(35.6) | 7(3.6) | 2(1.0) | 194(100.0) |
| | 여 | 49(32.9) | 17(11.4) | 36(24.2) | 46(30.9) | 1(0.7) | 149(100.0) |
| 연령별 | 20대 | 45(33.1) | 16(11.8) | 32(23.5) | 42(30.9) | 1(0.7) | 136(100.0) |
| | 30대 | 37(23.0) | 53(32.7) | 61(37.4) | 11(6.8) | 1(0.6) | 163(100.0) |
| | 40대 | 7(19.4) | 18(50.0) | 10(27.8) | - | 1(2.8) | 36(100.0) |
| | 50대 | 2(25.0) | 5(62.5) | 1(12.5) | - | - | 8(100.0) |
| 학력별 | 중졸 | 3(25.0) | 5(41.7) | 4(33.3) | - | - | 12(100.0) |
| | 고졸 | 35(21.1) | 65(39.2) | 60(36.1) | - | 3(1.8) | 163(100.0) |
| | 전문대졸 | 26(33.3) | 7(9.0) | 16(20.5) | 29(37.2) | - | 78(100.0) |
| | 대졸 | 27(30.0) | 15(16.7) | 24(26.7) | 24(26.7) | - | 90(100.0) |
| 경력별 | 1~3년 | 29(33.0) | 11(12.5) | 23(26.1) | 25(28.4) | - | 88(100.0) |
| | 3~5년 | 10(26.3) | 7(18.4) | 8(21.1) | 12(31.6) | - | 37(100.0) |
| | 5~10년 | 27(30.3) | 20(22.5) | 30(33.7) | 12(13.5) | - | 89(100.0) |
| | 10년 이상 | 25(19.4) | 54(41.9) | 43(33.3) | 4(3.1) | 3(3.1) | 129(100.0) |
| 계 | | 91(26.5) | 92(26.8) | 104(30.3) | 53(15.5) | 3(0.9) | 343(100.0) |

<표 11> CAD 교육을 받은 기관

(단위 : 명(%), 중복응답)

| 교육장소 | | 학원 | 개인지도 | 패션업체 | 공급업체 | 학교 | 선임자 | 기타 | 계 |
|------|--------|----------|----------|----------|----------|---------|----------|---------|------------|
| 분류 | | | | | | | | | |
| 성별 | 남 | 9(8.3) | 7(6.5) | 23(21.3) | 53(49.1) | - | 13(12.0) | 3(2.8) | 108(100.0) |
| | 여 | 38(31.7) | 5(4.2) | 18(15.0) | 29(24.2) | 9(7.5) | 21(17.5) | - | 120(100.0) |
| 연령별 | 20대 | 37(34.0) | 4(3.7) | 16(14.7) | 24(22.0) | 9(8.3) | 19(17.4) | - | 109(100.0) |
| | 30대 | 9(9.4) | 7(7.3) | 22(22.9) | 40(41.7) | - | 15(15.6) | 3(3.1) | 96(100.0) |
| | 40대 | 1(4.5) | 1(4.5) | 3(13.6) | 17(77.3) | - | - | - | 22(100.0) |
| | 50대 | - | - | - | 1(100.0) | - | - | - | 1(100.0) |
| 학력별 | 중졸 | - | - | 1(14.3) | 5(71.4) | - | - | - | 7(100.0) |
| | 고졸 | 7(7.0) | 6(6.0) | 24(24.0) | 48(48.0) | - | 15(15.0) | 1(14.3) | 100(100.0) |
| | 전문대졸 | 22(29.7) | 5(6.8) | 6(8.1) | 17(23.0) | 8(10.8) | 16(21.6) | - | 74(100.0) |
| | 대졸 | 18(38.3) | 1(2.1) | 10(21.3) | 12(25.5) | 1(2.1) | 3(6.4) | 2(4.3) | 47(100.0) |
| 경력별 | 1~3년 | 24(38.1) | 3(4.8) | 7(11.1) | 9(14.3) | 8(12.7) | 12(19.0) | - | 63(100.0) |
| | 3~5년 | 12(32.4) | 1(2.7) | 4(10.8) | 11(29.7) | 1(2.7) | 8(21.6) | - | 37(100.0) |
| | 5~10년 | 10(17.2) | 2(3.4) | 14(24.1) | 24(41.4) | - | 7(12.1) | 1(1.7) | 58(100.0) |
| | 10년 이상 | 1(1.4) | 6(8.6) | 16(22.9) | 38(54.3) | - | 7(10.0) | 2(2.9) | 70(100.0) |
| 계 | | 47(20.6) | 12(52.6) | 41(18.0) | 82(36.0) | 9(3.9) | 34(15.0) | 3(1.3) | 228(100.0) |

CAD교육을 받고 있으며 20대는 학원(34.0%)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학력별 비교에서도 전문대졸이나 대졸자의 경우도 학교는 (10.8%, 2.1%)이나 학원에서 받는 경우는 29.7%, 33.8%로 학교에서는 CAD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¹⁰⁾의 조사에서 대학의 시스템 도입은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시스템의 보유대수가 많지 않아 학교수업용보다는 연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CAD시스템이 고가의 장비이므로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몇 개의 공급업체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의류산업체의 요구를 감안할 때 CAD교육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의복구성분야 중 패턴 설계에 관해서는 대학에서 지식을 습득한 후 산업체에서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산업체에 보급된 실용 소프트웨어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차세대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에서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로 구성인력들의 역할은 변화되고 있고 학교교육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므로 의복구성학 영역에서 교육방법의 개선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의류산업체의 다양한 공정 중 패턴제작 공정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패턴니스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주로 30대가 50.7%, 20대가 34.3%로 30대와 20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패턴니스트들은 주로 20대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경력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남자 패턴니스트들은 30대와 40대의 고졸학력자로서 경력은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패턴니스트들의 세대교체 및 고학력의 전문인력들이 패턴니스트로 차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패턴실 구성원들의 패턴제작 방식은 경력자들은 주로 수작업으로 패턴제작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CAD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정도의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CAD를 이용하여 그레이딩, 마킹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각을 지닌 경력자들이 첨단 CAD시스템에 자신의 패턴 감각을 접목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패터니스트들이 패턴제작시에는 주로 평면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에만 입체제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터니스트들의 60%정도는 매번 기본원형 작업부터 패턴을 시작하는 비효율적인 패턴제작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패터니스트들이 패턴기술을 습득한 교육기관은 남자는 주로 개인지도나 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여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패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AD교육도 공급업체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패턴제작공정은 CAD 도입 등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의 변화와 패터니스트들의 의식변화로 정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패션교육이 특히 대학과 학원의 두 기관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학교교육이 학원교육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산업체의 환경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제작공정을 패터니스트와 환경적인 요인에서만 분석하였으나 패턴제작은 패터니스트만의 작업이 아니고 디자이너와의 연계작업이므로 우리나라의 업계현실에서 디자이너와 패터니스트와의 상호협력 차원에서의 패턴제작의 실태 및 봉제작업 등의 공정을 파악하여 의복구성학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적인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도규희, 최경순, 이정옥, 조차, 복식산업발전을 위한 패션전문교육에 관한 연구, 복식, 23, 1994, pp. 225-248.
2. 윤정옥, 패션산업과 의류학 교육, 의류산업, 1997.7, pp.21-23.
3. 박선경, CAD시스템을 이용한 패턴리스트의 디자인 패턴실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Bodice 변형디자인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1-4, 1997, p. 770.
4. 어미경, 의류봉제업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9.
5. 보빈저널, 1998.8, p. 104-105.
6. 박진아, 의류산업의 생산자동화 현황과 그에 따른 생산기획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23-24.
7. 보빈저널, 봉제기술 첨단보고 CAD/CAM이 보인다, 1998.1, pp. 116-137.
8. 日本纖維産業構造改善事業協會, アパレル製作技術 I (製品設計), 1994, pp. 3-72.
9. 최정옥, 국내어페럴 CAD시스템 사용현황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한경희, 어페럴 CAD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 이순원, 조길수, 이영숙, 피복과학총론, 서울:교문사, p.120, 1991.
12. 보빈저널, CAD.CAM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책, pp.122-123, 1997. 7.
13. 월간봉제계, 일체제단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봉제업계현황, 1991.7.
14. 광연신, 어페럴CAD시스템의 Pattern Making Module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